

청주국제공항 더 넓고 편리하게 개선된다

- 18일 “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” 보고회 개최
- 금년 하반기부터 여객터미널, 주차장, 주기장 확장 추진

□ 정부가 코로나-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,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나선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18일 오후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“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”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'23년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왔다. 특히,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(3.26)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(사장직무대행 이정기)와 여객터미널·주차장·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.

○ (여객터미널) 국내선 터미널*의 경우 '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,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 확장**을 위한 절차(타당성평가)도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.

* 적정 수용능력은 연간 289만 명이나,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운영 중이므로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확충하여 혼잡도 완화

** '23년 국제선 이용객은 52만 명이었으나, '24년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, 장래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처리용량 확대 추진

○ (주차시설)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대(증 597면, 4,857→5,454면)하고, '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(총 4층, 1,100면) 신축 절차(타당성 평가)도 추진한다.

○ (주기장)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주기장 확충사업(증 3~4개)도 6월말 설계용역 절차를 시작으로 '25년말 완공(최대 20개)할 계획이다.

- 우선, 연말까지 기존 비행기 대형주기장 2개를 중형주기장 4개로 활용하여 주기용량을 현재 14개에서 16개까지 주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.

○ 그 외 화물터미널, 활주로 연장·신설 등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 및 군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“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,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(총괄)	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4328)
		담당자	서기관	이한복 (044-201-4335)
		담당자	주무관	정찬우 (044-201-4415)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철운 (044-201-4347)
		담당자	사무관	류해진 (044-201-4344)
		담당자	주무관	정재홍 (044-201-4345)
한국공항 공사	건설사업실 공항계획부	책임자	실장	한기식 (02-2660-2331)
		담당자	차장	김준걸 (02-2660-2344)